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제1절 통합적 · 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212
제2절 국민외교 구현 224
제3절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227
제4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231
제5절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241

제1절

통합적 · 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1 통합적 · 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2018년 외교부는 ①대한민국 공공외교 통합 · 조정 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②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점검 및 보완 ③범정부 차원의 연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수립 ④공공외교 예산 확대 ⑤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최초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

1) 「공공외교법」 이행

외교부는 2018년 11월 외교부 장관 주재로 공공외교위원회[1]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외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공공외교위원회 위원들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국가

1) 「공공외교법」에 따라 2017년 8월 발족한 대한민국 공공외교 통합 · 조정 기구이다.

이미지 제고 방안을 추가했다. 그와 함께 6 · 25전쟁 참전용사,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 및 후손 방한 초청사업 등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신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공공외교위원회 제2차 회의(2018.11.26)

또한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검토해 공공외교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정책공공외교 사업 비중을 확대한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정책공공외교 실무 위원회 정례화, 특히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외교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하고 자발적 청소년 교류 강화, 온라인 한국어 보급 및 다국어 국제방송 제작, 시 ·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전 재외공관의 연간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또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공공외교 수행기관 간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외교 예산 증액

외교부는 대한민국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2019년 공공외교 사업 예산이 약 2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기존 2018년 예산 약 192억 원 대비 9.8% 증가한 규모로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2018년 25억 원→2019년 31억 원)과 공공외교 역량강화(2018년 144억→2019년 154억 원) 등을 위해 예산이 증액됐다.

3) 공공외교포럼 개최

외교부는 2018년 12월 '한 · 중 관계 향후 10년의 버팀목이 될 전면적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로 제6차 한 · 중 공공외교포럼을 중국 외교부와 함께 중국 옌청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①정치적 소통을 통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공감대 형성 ②내실 있는 협력으로 함께 여는 한·중 경제의 미래 ③민간교류를 통한 양국 간 정서적 공감대 강화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과 함께 2018년 10월 서울에서 '2018 한·일·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우호·이해·신뢰 제고를 위한 3국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중 공공외교포럼에서는 3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 언론인, 학자,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참가자가 ①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3국 국민 간 우호증진 방안 ②3국 간 이해증진을 위한 언론 및 뉴미디어 분야 대화 강화 방안 ③청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3국 미래세대 간 신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최초 개최

외교부는 재외공관과의 전략적이고 긴밀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외교 환경이 유사한 지역·문화권별로 개최하는 이 회의는 2018년에는 동남아 지역(9.6)과 아프리카 지역(12.20)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타 공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외교담당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동남아 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2018.9.6, 서울)



아프리카 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2018.12.20, 서울)

5) 문화교류계획서 체결 및 문화공동위 운영

외교부는 한·인도 간 상호 교류 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2022 한·인도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해 양국 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외교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양자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13일에는 '제8차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했으며 2018년 11월 15일에는 '제3차 한·카자흐스탄 문화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해 양국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6)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부는 충청북도의 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대회(9월), 전라남도의 수묵비엔날레(9~10월) 등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추진 과정에서 주한·재외 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등 연간 250여 건의 국제 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2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1) 풍부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1) 한국주간행사

외교부는 외국 국민에게 한국을 올바로 알리고 선진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정무·경제·문화가 융·복합된 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140여 개 공관에서 전통예술 공연, 전시·강연, 영화제, K-p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일본, 인도, 브라질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및 경제) 카라반 행사'를 진행했다. 네덜란드, 캐나다(몬트리올), 불가리아에서는 하멜하우스 한국 작가 초대전(네덜란드), 한인 예술인 전시회(몬트리올), 한 · 불가리아 미술전시회(불가리아) 등을 추진해 역량 있는 한국 미술가의 작품을 해외에 알리고 민간예술 교류를 확대했다.

10월 정상 유럽 순방 이후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참여한 평화콘서트는 국제사회에 음악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신남방 지역에서는 '2018 한국주간행사(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해 영화, 사진, 국악, 태권도,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해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 또는 25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와 수교를 기념하거나 해당 국가의 특별한 날(예: 독립 100주년 등)을 축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외교 행사를 추진해 굳건한 우호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2018년에는 23개 국가에서 42회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는데 그중 9개 국가와는 양국 수교를, 14개 국가와는 주요 외교 계기를 기념하는 사업을 펼쳤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태국과는 기념 로고 공모전,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학술세미나, 양국 합동 전시회, 정책세미나 등 기념행사를 연중 진행했고, 모잠비크(수교 25주년),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수교 30주년), 투발루, 솔로몬제도(수교 40주년), 가이아나(수교 50주년) 등의 국가와도 다방면으로 수교기념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수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에스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독립 100주년과 미얀마 독립 70주년, 나우루 독립 5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해 독립이 지니는 뜻깊은 의미를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 · 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3) 재외공관 국가 브랜드 전시 사업

외교부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임차한 미술품 827점을 92개 공관에 지원해 외교부 소장미술품 4,000여 점과 함께 재외공관에 전시함으로써 공간을 우리 문화 홍보의 해외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4)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

2018년에는 한-불어권국제기구(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와 '한국 내 프랑코포니 축제'를 공동 개최해 음악, 영화, 연극, 문학 등 프랑스어권 국가의 다채로운 문화를 우리 국민에게 소개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한 '한 · 일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5)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 22개국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 관련 퀴즈쇼인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을 진행했다. 예선을 통과한 국가별 우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결승전을 치렀으며, 결승전은 KBS 1TV 및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방영됐다.

또한 75개국 90개 재외공관은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지역 예선을 개최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개국 본선 진출팀을 한국으로 초청했으며, 창원에서 개최된 본선대회는 KBS 2TV/World를 통해 전 세계 117개국에 방영됐다.

그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Talk! Talk! Korea 2018'이 146개국에서 3만 2,345건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으며 수상작을 활용해 제작한 홍보영상은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영됐다.

(6) 스포츠공공외교 협력사업

외교부는 2018년 스포츠공공외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90개 재외공관에서 공관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외교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했다. 주요 인사 면담, 각종 외교행사, 재외공관에서의 홍보(기고, 인터뷰, SNS 게시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한국 평창의 밤(Korea PyeongChang Night)' 행사(1.25) 등을 진행했다.

(7) 해외 미술관 · 박물관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

외교부는 2,800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이 해외 미술관 · 박물관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 보급했다. 2018년에는 오스트리아(벨베데레미술관), 벨기에(왕립미술관), 이탈리아(보르게제미술관), 스페인(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 4개 지역에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설치했다.

2)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1)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2018년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해 66개국 177개 대학에서 856건의 한국학 강좌 운영을 지원했다.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수직 설치를 위해 9개국 21개 대학을 지원하고 한국학 및 한국어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12개국 21개 대학을 지원했다. 한편 국내외 대학 간 또는 해외 대학 간 실시간 화상 강의를 제공하는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해외 29개국 89개 대학에 한국학 강좌를 제공했다. 아울러 총 47개국 67개처에 KF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또한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해 12개국 30명의 해외 학자와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해 학문 분야별 심층적인 현장 조사 · 연구를 지원했고, 31개국 62명의 한국학 전공자의 방한 한국어 연수를 지원했으며, 아세안 지역의 한국학 교수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개국 4명을 한국에 초청해 석사 ·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지원했다.

그와 함께 총 33개 개발도상국 외교관 34명에게 3개월간 한국 언어 · 문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지한(知韓) 외교관 인맥을 확대하고, 16개국 38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 중인 대학원생 9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6개국 18명의 신진 학자에게 박사후 과정 펠로십을 제공했다.

그 밖에도 국내 및 현지에서 개최한 총 7건의 교육자 대상 한국학 워크숍에 5개국가의 중등학교 교육자 및 교육행정가 283명이 참가했다. 한국학 특강(KF Lecture Series) 사업으로 태국 2개 대학, 인도네시아 4개 대학, 인도 3개 대학에서 현지 학계 인사와 일반인을 위한 한국학 특강을 개설했다.

(2)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외교부는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필리핀 등에 15개의 코리아코너를 신설했다. 코리아코너는 현재 전 세계 56개국 71개처에서 외국 현지 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한국문화복합 홍보관' 기능을 하고 있다.

코리아코너 개관식



중국 쓰촨외국어대(2018.11.29)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2018.11.13)

(3) 교육 · 학술 협력 지원

2018년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은 63개국에서 138명이, 대학원 장학생은 138개국에서 665명이 선발됐다.

외교부는 각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기관 간 교육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아일랜드, 이라크, 필리핀, 모로코, 수단 등과 교육 관련 MOU 추진 및 체결을 지원했다.

3)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1) 주요 국가 대상 정책공공외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교부는 주요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강화, 확장하는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특히 외교부는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언론, 주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강연,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1차관이 6월 주보스턴 총영사관-하버드벨퍼센터 공동 주관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토론하고, 제2차관이 7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반도 정세 진전 현황 및 굳건한 한·미 동맹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 및 수행기관 간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해 대미 정책공공외교 범정부위원회(2회), 민관협업회의(2회) 및 미국 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그와 함께 외교부는 영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 내 주요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등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포럼, 간담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외교대사와 한반도 분야 전문 학자들은 11월 런던에서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주요 외교안보 분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평화포럼(Korean Peninsula Peace Forum)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현지 인사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상황에 맞춰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통일정책을 소개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사업과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우리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홍콩(5.9), 일본 도쿄·센다이·고베(4.16~20), 중국 광저우(9.20)와 상하이(12.6)에서 현지 정·관계, 학계, 언론계를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201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공공외교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월 일본 도쿄·센다이·고베 지역 공공외교 활동에 이어 우리와 역사적 인연이 많은 센다이(11.28~12.1)에서 한·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인 김기림 기념비 건립(도호쿠대학교), 전문가 심포지엄, 동일본 대지진 현장 방문, 한류 공연 등 양국 국민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과 실질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3.15), 인도(6.20), 인도네시아(10.15), 싱가포르(10.16)에서 현지 유력 싱크탱크와 공동으로 공공외교대화를 개최했다. 특히 정상 방문 직전에 공공외교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상외교에 대한 현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2) 주한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외교부는 주한 외국인 교수로 구성된 공공외교 자문단 '돌담클럽' 구성원과 우리 공공외교와 관련해 토론하고 자문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주한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강연회 디톡스(D-Talks: Diplomatic Talks)를 4차례 개최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4)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

(1)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

외교부는 2018년에 '글로벌 문화꿈나무' 사업의 일환으로 네팔, 인도, 라오스, 베트남 4개국에 총 24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음악, 미술, 마술, K-pop 등 다방면에 걸친 무료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4개 공관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4명을 파견해 다양한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며 직접 외교 현장을 체험토록 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제1회 공공외교주간, 공공외교아카데미,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청년공공외교단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제1회 공공외교주간 개막식(2018.11.1, 서울)



KF 국민공공외교 발대식(2018.6.15, 서울)

2018년 11월 1~3일에는 공공외교의 현황, 성과와 다양한 활동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제1회 공공외교주간'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다. 그와 함께 우리 국민의 공공외교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외교아카데미'를 신설해 일반인 및 실무자 대상 공공외교 강좌를 11회 운영하고, 공공외교 역량강화 시범대학 7개교를 선정해 공공외교 관련 교과목을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공공외교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공모했고, 총 8개 프로젝트 51명을 선발해 문화예술, IT, 교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국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했다.

우리 청년의 국내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공공외교단'은 2018년 68명이 선발돼 9개 팀으로 활동했다. 청년공공외교단은 1년 동안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역사·외교 테마 투어, 전통문화 체험행사, 한식 소개 등 우리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고등학생 대상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공외교캠프를 2박 3일간 진행했다.

(2) 재외 예술인 활용 문화행사

2018년에는 미국, 케냐, 베네수엘라, 인도, 스위스 등 9개국 14개 재외공관에서 성악, 클래식 연주, 한국무용,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주재국의 주요 인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했다.

3 한 · 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외교부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최대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 195개 회원국 중 13위 규모의 분담금과 상위 5위의 자발적 기여금을 내는 핵심 공여국으로 발돋움했다. 2017년부터 집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며, 집행이사국(2015~2019년 임기), 무형유산위원국(2014~2018년 임기),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이사국 등 총 11개 운영기구에 참여해 유네스코 주요 사업과 행정 · 재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8 유네스코 전략 포럼'을 개최해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순천'과 '금강산'이 동시 지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씨름'이 사상 처음 남북 공동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한편 일본이 2015년 등재한 세계유산 후속 조치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등재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2018.6.30)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해 수행한 '기억 유산 해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역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석 전략을 마련해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씨름' 유네스코 최초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2018.11.26)

제2절
국민외교 구현

1 개관

민주주의 성숙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쌍방향 외교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즉 '국민외교'를 외교부 6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을 국민외교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

국민외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해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방적인 정책 홍보를 넘어서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과 국가 간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한다.

외교부는 2018년에 국민외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외교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2 국민 참여 방안 모색



자유발언대(2018.7.7)

국민 참여는 정책 입안, 시행, 평가 등 외교과정 전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외교'를 추구한다. 외교부는 국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3월), 자유발언대(7.7) 등을 개최했다. 특히 정책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정책제안 76건 중 모바일 플랫폼 관련 아이디어 12건을 바탕으로 국민외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한편 외교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교부에 적합한 국민참여 모델을 모색했다. 그 결과 외교부에 적합한 국민참여 형태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①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 연령 · 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②국민참여단이 외교현안에 대해 학습 ·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원한 후 ③국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친 심층 여론을 정책반영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한국 외교정책 추진방향: 2019년 한국 외교에 바란다'를 주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3 국민과 소통 활성화

외교부는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우선 국민외교 사업 수행기구이자 대국민 소통공간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5.4)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61건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1,0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국민외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외교 국회포럼을 개최(9.3)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주 우석대학교를 찾아(9.7) 최근 외교정책의 흐름을 직접 소개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외교부는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18년 총 18회에 걸쳐 대국민 공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국민외교 디자인단(1기 15명)을 선발해 국민외교 추진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국민외교 홍보를 지원했다.

오프라인에서 소통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외교 전용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개설해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외교와 다양한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외교센터 개소(2018.5.4. 외교부 청사)



장관과의 대화(2018.9.7. 전주 우석대학교)



국민외교센터에서의 대국민 강연시리즈 진행

제3절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1 개관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교 방문 강연, 외교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외교정책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기획·홍보 사업으로 선정한 뒤 중점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주요 외교 정책 및 우리 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재외공관에서도 현지 국민과 언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긍정적인 이미지와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 대국민 온라인 소통 · 참여 강화

외교부는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18년 9월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정상외교, 해외안전정보, 국제기구 진출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퀴즈 이벤트를 매달 진행해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외교부는 2012년 9월 소셜 방송 '라이브모파(LiveMOFA)'를 개국한 이래 2018년 12월까지 총 112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지속해서 늘려 가고 있다. 라이브모파는 주요 외교 사안 또는 국민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생방송으로 전달함으로써 외교 당국자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22회의 라이브모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평균 조회수 3만 5,211회를 기록하는 등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며 시청자층을 계속 넓혀 가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이화여자대학교 특강' 편과 '주한외교단 초청,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편은 시청자가 10만명을 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에 힘입어 2018년 외교부 SNS 구독자 수와 영향력이 계속 증가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총 380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또한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존 및 배너존을 신설하고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편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그와 함께 외교부는 어린이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외교 소식 및 국내외 정보를 대학생의 시각에 맞춰 흥미 있게 소개하는 정책 블로그 '모파랑'도 운영하고 있다.

3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및 기획 홍보

외교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초 · 중 · 고교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하는 외교부 견학프로그램을 매년 월 2~3회 진행 중이다. 또한 외교부 실무직원 또는 국제관계대사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34개교의 학생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부와 외교정책 및 외교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와 함께 외교부는 대학생 서포터스인 '프렌즈 오브 모파(Friends of MOFA)' 운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초로 다양한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외교 · 국제 관계 관련 주제로 토크콘서트 '외교톡톡(외교 Talk Talk)'도 개최했다.

외교부는 2011년부터 매년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주요 외교정책 및 사업을 선정해 다양한 기획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17년부터 진행한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인 '지구청년'을 주제로 지속해서 홍보했다. '지구청년' 홍보사업을 통해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라디오 공개방송


해외 진출 경험자와 대화


네이버 취업사이트 홍보


찾아가는 지구청년 설명회

2018년 외교부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 현황

구분	매체(수단)	주요 활동
온라인 매체	SNS	· 국 · 영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운영(mofakr) – 신속한 정보전달 및 다양한 기획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블로그	· 주요 외교 행사, 국제이슈, 재외공관 미담 등을 글, 동영상, 사진으로 설명 · 대학생 서포터스 그룹의 취재 기사 게재
	홈페이지	·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총 383개 운영 – 국 · 영문 각 1개, 재외공관 국문 182개, 외국어 198개 (영어 87개, 현지어 111개),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1개
	뉴스레터/정책메일	· 총 52회 발송
	온라인 퀴즈 이벤트	· 온라인 퀴즈 이벤트 수시 개최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외교부 견학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총 27회(1,396명 참석)
	학교 방문 강연	· 총 334개 학교 방문(3만 3,395명 참석)
기획홍보	'지구청년' 홍보	· 지구청년 설명회 총 14회
		· 라디오 공개방송, 웹툰 PPL, 간행물 지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홍보

4 공보 서비스 강화

외교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장 · 차관 브리핑(총 50회), 대변인 브리핑 및 부대변인 일정 설명 브리핑(총 146회), 대언론 간담회(총 79회), 언론 취재 지원(총 158회), 정책설명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브라운백 세미나(총 180회), 언론 인터뷰 및 기고(총 400건), 보도자료(총 878건) 및 언론 응대 자료 작성 혹은 배포(총 1,500여 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외교부 직원 대상 브라운백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총 10회)해 부내 실무직원의 공보 · 홍보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제4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1 재외국민 보호 활동 적극 수행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이 사건 ·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9월 홋카이도 지진 당시 우리 국민 6,150명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고, 10월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해 우리 국민이 고립됐을 당시 군 수송기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여행객 2,018명의 귀국을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1)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적 · 물적 기반 확충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외교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영사조력 환경 등이 법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2) 재외동포영사실 확대 개편 및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소

외교부는 2018년 3월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보호 기능을 분리, 강화했다. 이어서 5월에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개소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①국외 위난상황 및 사건 · 사고 모니터링 · 접수 · 전파, 초동대응 및 긴급상황 관리 ②재외공관 현장대책반 및 신속대응팀 활동 지원 ③해외안전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사건 · 사고 담당 인력 증원

외교부는 사건 ·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8년도에 재외공관 사건 · 사고 담당 영사 39명과 영사를 보조해 초기 대응, 현장출동, 행정사항 처리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 · 사고 담당 행정직원 20명을 증원했다.

2) 예방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

(1)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외교부의 해외 사건 · 사고 예방 활동의 핵심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8년 출국자가 2,870만 명

에 달한 가운데 우리 국민 관련 사건 · 사고가 하루 평균 약 55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 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적시에 알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에도 외교부는 각종 온 · 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등 안전여행을 위한 정보를 공지했다. 그와 함께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국민이 해외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사건 · 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 도착 즉시 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해외안전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수혜자의 폭을 확대했다.

또한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국민일보 '해외선교 · 성지순례 안전기상도'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 JTBC '아지트', 인터넷방송 '대도박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 및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장 ·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보 제공의 효과 및 신뢰를 높였다.

한편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여권 발급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대학교 등에 자체 제작한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선교단체 및 여행업계 안전간담회, 찾아가는 해외안전여행 강연 등을 통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2) 여행경보 제도

여행경보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경보 제도는 남색경보(여행 유의), 황색경보(여행 자제), 적색경보(철수 권고), 흑색경보(여행 금지) 등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구성돼 있다. 그와 함께 2013년부

터 단기적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령하는 특별여행주의보 및 특별여행경보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여행경보 수준을 일 년에 두 번 정기 조정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상·하반기 정기 조정 기준 20개, 수시 조정 기준 12개의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3) 여행금지 제도

2018년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국(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군도)의 여행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4)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2018년에 선발된 제16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해외안전여행 토크콘서트, 공항 내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오프라인 행사,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 재외국민보호 제도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활동은 국민에게 해외 안전의식을 전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대응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

(1)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재난, 질병,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민원의 접수창구이자 1차적인 영사 민원 대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권, 영사 확인 관련 문의 등 외교부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 상담업무를 24시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 상황 시 통역 제공, 신속해외송금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지 발송 및 해외안전정보 수집·전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사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는 개소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상담 실적은 연평균 23만 건을 기록했다. 영사콜센터는 2018년 2월 대만 화롄 지진, 9월 일본 홋카이도 지진, 10월 태풍 위투의 사이판 강타 등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국민의 연락두절 신고를 접수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 여부를 파악해 국내 연고자에게 안내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상담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과 신속성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수행된 2018년 콜센터서비스 품질지수 평가 결과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으며 2008년 이래 11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2) 신속대응팀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전문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에도 3월 가나 해상 우리 선원 피랍, 7월 리비아 내 우리 국민 피랍, 9월 일본 홋카이도 지진, 10월 네팔 히말라야 등반 우리 국민 사망, 10월 태풍 위투의 사이판 강타 등 해외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적시에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평시 대응 태세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미국 애틀랜타, 5월 네팔 카트만두, 10월 미국 시애틀,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현지 한인사회와 공동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3)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최근 3년(2016~2018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 42명 중 약 31%에 해당하는 13명이 필리핀에서 피살됨에 따라 외교부는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필리핀 경찰 내 한인 사건 전담수사반(코리안데스크)에 우리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해(2018년 기준 6명 파견 중) 우리 국민 보호 역량을 확충했다. 또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청 수사 전문인력을 현지

에 파견하는 등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4) 지역별 사건 · 사고담당영사회의

외교부는 2018년에 3월 중남미, 6월 동남아, 11월 중동, 12월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사건 · 사고담당영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 간 대응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재외공관 사건 · 사고담당영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5) 영사협력원

외교부는 2007년 3월부터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고 이들 지역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확대돼 2018년 12월 현재 150여 명의 영사협력원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6) 신속해외송금지원

신속해외송금지원이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 분실 등의 사유로 일시적 재정 궁핍 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해 경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농협, 수협,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해외송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891건, 약 7억 원의 송금을 지원했다.

(7) 긴급구난활동비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사건 · 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구난 활동 및 긴급지원에 사용하도록 배정된 예산이다. 2018년에는 33건의 사건 · 사고에 대한 구난 활동 및 긴급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2 2018년 주요 사건 · 사고 대응

우리 국민의 출국자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18년에는 2만 100건의 각종 재외국민 관련 사건 · 사고가 발생했다.[2] 일반 사건 · 사고뿐만 아니라 지진 및 태풍 같은 자연재해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1) 가나 해상 우리 국민 탑승 어선 피랍 사건 대응

2018년 3월 26일 우리 국민이 탑승한 어선이 가나 해상에서 조업활동 중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교부 및 유관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청해부대를 통한 해적세력 압박 전략을 펼치는 등 외교부와 유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건 발생 32일 만에 우리 선원 3명 전원을 무사히 석방시켰다.

2) 홋카이도 지진 대응

2018년 9월 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남동쪽 66km 지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산사태 및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공항이 폐쇄되고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교통이 마비됐다.

외교부는 지진 발생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게 최신 안전정보와 항공기 운항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신치토세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고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안내하는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토교통부 및 국적항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34편의 임시 항공편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 6,150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2) 출국자 수는 2016년 2,200만 명에서 2017년 2,650만 명, 2018년 2,87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외국민의 사건 · 사고 종류는 범죄 피해 13,235건, 범죄 가해 1,869건, 기타 4,996건으로 나타났다.

3) 태풍 위투의 사이판 강타 대응

2018년 10월 사이판에 상륙한 제26호 태풍 위투로 공항이 폐쇄돼 우리 여행객 1,800여 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사이판 및 괌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한 후 임시 항공편 및 군 수송기 탑승 절차를 안내했다.

그와 동시에 외교부는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재외공관에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군 수송기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국민 2,018명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했다.

4) 주요 국제 스포츠행사 계기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외교부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및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기간 중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치안 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에게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3 재외동포 지원 강화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할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에 의해 1996년 설립됐으며 2018년까지 총 19차례의 정책위원회와 27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됐다.

제1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2018년 12월 말 서면심의를 통해 ①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②국내 체류 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지원 방안 ③해외 한인입양인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의 빠른 세대교체로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축이 차세대로 이동되

고 있음을 감안해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차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2)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1) 대통령 해외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 개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말까지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계기로 총 17차례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에는 베트남(3.22), 아랍에미리트(3.25), 러시아(6.21), 인도(7.9), 싱가포르(7.13), 프랑스(10.13), 체코(11.28), 아르헨티나(11.29), 뉴질랜드(12.3)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2)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외교부는 2018년 10월 5일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하에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한인의 날(10.5)은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전 세계 한인회장이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재외동포 유공자에게 포상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10.3~6)에서는 정부와 대화, 정당 정책포럼,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지역별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회의와 강연이 진행됐다.

(3)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외교부는 '2018년 제17차 세계한상대회(10.23~25)'를 개최해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다.

2018년 행사에는 역대 최다 기업인(국내외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세계한상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1만 6,000여 건, 약 2억 1,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대회 중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을 진행해 23개국 46개 한상기업에서 79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3)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1) 재외 한글학교 지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미래 한인사회 주역인 한인 자녀들이 우리 언어, 역사, 문화를 간직한 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1,600여 개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했다.

(2)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는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 초청연수 및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통해 한인 차세대가 모국에서 문화·안보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향후 모국과 주재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9월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9.17~21)'에는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70여 명의 한인 차세대 인재를 모국에 초청해 국내 차세대 단체와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운동가 임천택, 박미하일의 후손도 이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참석자들과 함께 모국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제5절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2018년 말 기준 총 108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3]이 발효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됐다.

2018년에는 2017년 말 바누아투와 체결한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2.21)됐으며 탄자니아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서명(7.22), 발효(10.5)됐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24)해 사증 수수료 인하 및 복수사증발급이 간소화됐다.

3) 사증면제협정이란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사증 없이 상대국을 일정 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이다.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2018년 말까지 총 24개 국가[4]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폴란드(1.24), 아르헨티나(11.27)와 신규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2018년에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총 45회 개최했다. 특히 캐나다, 아일랜드 등 주한 외국공관과의 공동 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현지 안전 및 생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경험자로 구성된 워킹홀리데이 대학생 홍보단인 '워홀 프렌즈'를 선발해 워킹홀리데이 예비 참가자의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 주재하는 각 재외공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대상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관할구역 최신 안전정보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워홀러 상담원을 운영하고,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뿐만 아니라 취업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정착지원을 위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했다.

또한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국 언어로 제작·배포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3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우리 정부는 2018년 모잠비크(4.30 서명, 12.1 발효) 및 콜롬비아(8.1 서명, 10.31 발효)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신규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류 편익이 크게 제고됐다.

4) 협정 발효 기준으로는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발효 중이다(2018.12.31. 기준).

4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및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외교부는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과 디자인이 개선된 PC(Poly Carbonate) 타입의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세부 사양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결정했다.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2)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의 부족·만료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출입국 편익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한글 성명의 발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변경이 허용돼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제고됐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사진 규격 대비 과도한 항목을 삭제하고 표현을 순화하는 등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1.25)해 국민 편의를 도모했다.

3)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및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외교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을 단계별로 확대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249개 기관 · 출장소 9개 포함)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한 여권을 전국의 모든 대행기관에서 동일 기간(약 4~5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7명의 강사가 상주 근무하는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외 2,000여 명의 여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권 실무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으로 여권실무교육(집합교육 및 순회교육)을 총 32회(245개 대행기관, 직원 756명), 재외공관 대상으로 총 4회(8개 재외공관, 총 138명) 진행했다.

5 영사 서비스 품질 향상

1) 재외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영사 서비스 분야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2018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으로 공증 민원서류의 온라인 확인 체계 구축과 운전경력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17년에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2018년 7월부터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내 10여 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2) 순회영사 활동 강화

2018년에는 159개 공관에서 총 1,146회의 순회영사 활동을 전개해 6만 5,857건의 영사 민원(여권, 공증, 병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순회영사 활동을 계기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재국 지역 경찰,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층 더 강화했다.